

故 흥남순 변호사 화순 생가 복원 추진

화순군, 이달 실시설계용역·내달 사업자 선정...10월 준공 5·18 사적지 광주 동구 '민주 사랑방' 연계 기념사업 활용

민중화 운동에 헌신했던 고(故) 흥남순 변호사가 태어나고 자란 화순 생가가 복원된다. '민주 사랑방'으로 불렸던 흥 변호사의 광주 동구 공동 주택의 5·18사적지(제29호) 지정에 이어 그의 의로운 삶을 기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순군은 도곡면 효산리 209번지 일대 고 흥남순 변호사의 생가터(383㎡)에 목조 초가(84.24㎡) 형태로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화순군은 지난해 흥 변호사가 태어나 자

란 생가를 복원, 그가 일생을 통해 보여줬던 민주인권 옹호와 저항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활용키로 하고 '생가복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흥 변호사 가족들도 기념사업을 구상중인 화순군에 생가터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어 최근 관련 절차까지 마무리했다는 게 화순군 설명이다.

화순군은 이달 말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달 사업자를 선정, 본격적인 복원공사에 나서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관련 사업비로 2억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군은 가족

들의 기억을 살려 안채(51.84㎡)와 부엌, 사랑채 등 최대한 원형을 살리는 형태로 복원한다는 입장이다. 화순의 흥 변호사 생가가 복원되면 5·18 사적지인 광주시 동구 공동 주택과 함께 흥 변호사 기념사업을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 1950년대 중반 흥 변호사가 광주 지법 판사로 부임하면서 거처로 삼은 광주시 동구 공동 주택은 그가 숨을 거둔 지난 2006년 10월까지 광주시민들에게 '민주 사랑방'으로 불렸던 곳이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반대 투쟁의 호남지역 거점으로 사용됐고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가 저지른 광주학살 당시에는 항쟁과 수습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던 곳으로, 전국의 내로라하는 민주인사부터 시위대에 쫓긴 시민, 학생들까지 밤낮없이 사

람들이 찾아들었던 민주주의의 산실이기도 하다.

화순군은 이같은 점을 반영, 흥 변호사의 화순 생가와 광주 사적지 등을 연계한 기념사업 뿐 아니라 생가인 도곡면 일대에 이미 조성된 캠핑장·고인돌공원과 정원·거석테마파크·선사문화체험장 등도 흥 변호사의 의로운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활용키로 했다.

'시대의 의인'이자 1세대 민주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흥남순 변호사는 1960년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위원회 전남부위원장, 1969년 3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전남위원장, 1980년 5·18 수습대책위원, 1985년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건립추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 민주화운동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대형마트 지역 상권 영향 직접 조사

소상공인 상생방안 활용키로

전남지역에 들어선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에 미친 영향을 전남도가 직접 조사한다.

2년 전 광양과 무안 남악에 들어선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이 지역 상권에 '빨대 효과'나 '내몰림효과' 등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비슷한 사례 발생 시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가 2년 전 250명 상인 설문조사로 대대적 상권영향조사를 한 것에 견줘 훨씬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전남도는 27일 '대규모점포(LF스퀘어 광양점·무안 남악 롯데아울렛점) 개장에 따른 지역 상권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예산 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전남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전남도는 LF스퀘어 광양점과 무안 남악 롯데아울렛점이 들어선 목포·무안, 순천·광양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전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 2017년 입점 이후 5년간 해당지역 일대 상권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방안 및 지원 방안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히 용역 주요 과제로 ▲전국 및 전남도 소상공인 현황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현황분석 ▲대규모점포 개

장지역과 인근 3, 5, 10km 일대 지역상권 매출액(연도별, 업종별) 분석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해당지역 피해 우려 업종 및 수혜 업종 파악 ▲타 지역 대규모점포 입점 시 주변지역 상권 사례 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단기 및 중·장기) 방안 ▲타 지역 우수 상생방안 등을 연구·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대형마트 입점 때 주변 상인들이 겪을 수 있는 매출 타격과 업종별 민감도를 분석하는 한편,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제언도 담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17년 250명 상인의 설문을 토대로 LF 광양점·무안 남악 롯데아울렛점 등 대규모점포 입점 관련 지역 상권영향을 분석, 인근 상권 중소기업이 30% 인력의 매출 감소를 체감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상인에 대한 설문조사로서 객관적 매출비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체감도 평가'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는 또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주변 상권영향을 스스로 평가한 후 지역협력계획을 관할 시·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성·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용역 결과가 보다 나은 골목상권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동반성장을 돕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땅콩 회항 '나비효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박탈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한항공은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73.84%(9484만4611주 중 74만946주)가 표결에 참여했다.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주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날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사내이사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가 조 중훈 회장이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 경영권에 상실하게 됐다. 특히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에 제한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자본시장 촛불혁명"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대한항공 주주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 외국인 주주 지분율은 20.50%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총회 의장인 우기홍 대표이사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박탈이 결정된 사내이사 연임의 건 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폼페이오 내일 워싱턴 회담...북미협상 재개 논의

최섉희 부상 회견·연락사무소 철수 등 北 행보 평가 공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29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한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외교부는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같은 날 오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참석하러 뒤 워싱턴D.C로 이동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처음이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하노이 회담'이 끝난 직후인 지난 1일 통화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최섉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한 브리핑에서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거론한 일과, 지난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력을 일시 철수시켰다가 사흘 만에 일부 북귀시킨 일 등 북한의 최근 행보와 관련한 분석을 공유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외교장

관회담은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팔타결'을 선호하는 미국과, 단계적 합의 및 이행을 희망하는 북한 사이의 현격한 입장 차이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만큼 강 장관이 양측 입장을 절충할 아이디어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그와 더불어, 양국 외교장관의 만남이 한미관계에 이상기류가 있다는 설(說)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 개최도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전남도, 재난 상황 원격 마을방송·문자 서비스

모바일 웹 활용 시스템 구축

전남도는 재난 상황과 이에 대비하는 행동요령을 신속히 안내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모바일 웹 활용 원격 마을방송과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총사업비 6억 5000만원을 들여 시군 마을방송시설 6525곳을 연계하고 모바일 앱(APP)을 통해 원격으로 마을방송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상청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도 연결해 도내에서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대응 요령이 마을방송과 문자 메시지로 자동 안내된다.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안전 안내수단으로 긴급재난문자가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휴대전화 문자의 경우 글자 수가 적다는 단점 때문에 재난 상황에 대한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웠다.

마을별 안내사항 전달을 위해 주로 사용되던 마을방송도 시·군별로 시스템이 달라 통합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새 시스템은 긴급상황 발생 시 동일 내용의 안내방송을 같은 시간대 마을방송을 통해 직접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

전남도는 기존 긴급상황 통보 사업의 이런 단점을 이번 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임야
단독성/지분물건 환영
바로합니다.010-6834-7400

투자 자문
3억이상, 연 2부이상 법적보장
(주)오천/최선규.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외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삼계면 죽림리 1536㎡ 백일홍·꾸지뽕나무 200여주있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자은면 한운리 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복합 분할가능 3억7천
- 무안군 해제면 바다 150m 대지 790㎡ 팬션 전원생활적합 4천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대지 등 1749㎡ 교환가능 1억6천
- 영광 염산면 신성리 땅 3088㎡ 주택 95㎡ 유실수 100여그루식재 2억
- 서구 화정동 양면 소방도로 접 235㎡ 주택은 공실 조용한생활적합 3억3천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톨7 교환가능 임대중임 4억7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밑 4차선 접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 무안읍 원동-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점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8억9천

상가건물

- 동구 지산동 땅 4732㎡ 건평 652㎡ 식당적합 18억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백운동로터리와 대성로터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장흥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 등 적합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4억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접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나주 금천면 국도 접 주거지·대지·자연녹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79억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사육 등 적합 12억
- 충장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 25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교,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전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급매-8억

문의. 010-3605-5000